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OOF

가제 : 킁킁!

저자 : Spencer Quinn

출판사: Scholastic Press

발행일: 2015년 4월 2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영리한 개와 꼬마 소녀, 루이지애나 늪지대 마을에서 벌어진 수상한 도난 사건을 파헤치다!

‘젯’이라는 이름의 개와 탐정 ‘버니’가 함께 미궁에 빠진 사건을 수사하는 이야기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19개국에서 출간된 시리즈물을 쓴 작가 스펜서 퀸. 그가 이번에는 어린 독자들을 위해 개의 시선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어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완성했다. 용감 무쌍한 열한 살 소녀 버디와 개 바우저가 루이지애나 늪지대 인근 마을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추리 소설이다.

땅 속 깊이 파묻힌 석유를 파내는 일을 하는 엄마가 아프리카 앙고라에 가 있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버디. 할머니는 악어가 득실대는 늪지대 가까운 마을에서 낚시용품을 판매하고 늪지대 관광도 시켜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고 있다. 버디의 열한 살 생일을 맞아 할머니께서는 강아지 기르는 것을 허락해주셨고, 신이 난 버디는 할머니와 함께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다. ‘버스터’라 불리는 강아지를 보고 한 눈에 마음이 통한다고 느낀 버디. 쑥쑥 자라 집을 다 먹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할머니의 만류에도, 다른 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버스터를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마음이 통한다고 느낀 것은 버스터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새 식구가 된 버스터에게 ‘바우저’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가게에 돌아온 두 사람. 혼자 가게를 지키던 직원은 카운터 뒤에서 쿨쿨 잠들어 있는데, 가게 안이 무언가 이상했다. 뭔가 없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며 가게를 둘러보던 할머니와 버니는 카운터 뒤에 걸려있던 ‘블랙잭’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블랙잭은 아주 오래 전 할아버지가 잡은 커다란 청새치를 박제한 것으로, 각종 낚시 대회에서 상을 휩쓴 소중한 기념품이었다. 가족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물고기 박제품을 대체 누가 훔쳐갔을까? 당황한 할머니와 버디가 발견한 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특이한 시가 냄새가 전부였다.

사라진 박제 물고기와 그 속에 숨겨진 보물 지도, 용감한 소녀와 카리스마 넘치는 개의 모험

영리한 개 바우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 채 적응도 하기 전에 버니와 함께 도둑을 찾아 나선다. 둘은 범인을 찾아 할머니 가게와 경쟁 관계인 스트레이커 씨의 ‘세계 최고 낚시용품점’을 찾아가 뒤져보고, 도서관을 찾아가서 자료 검색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도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사라진 ‘블랙잭’은 그냥 평범한 박제 물고기가 아니라, 뱃속에 보물 지도가 몰래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범인은 바로 그 지도를 노리고 물고기를 훔쳤는지도 모른다. 바우저와 버니는 할아버지가 오래 전 숨겨놨을지도 모르는 보물을 찾아, 어두운 밤 컴컴한 늪 지대까지 뒤져가며 범인과 지도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간다.

에너지 넘치는 바우저와 버니를 중심으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등장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이어진다. 바우저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 애완견 특유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그대로 녹아있고,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온갖 일들이 끊임 없이 흥미를 자아낸다.

<저자 소개>

스펜서 퀸(Spencer Quin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된 미스터리 시리즈 《Chet and Bernie》를 쓴 작가로 케이프 코드에 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THE MALONEYS' MAGICAL WEATHERBOX

가제 : 멜로니 가족과 신기한 일기예보 부스

저자 : Nigel Quinlan

출판사: Orion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5년 5월 7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지구상에 단 네 명, 일 년에 네 번 어딘가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계절을 바꾸는 기상예보관들

사람들이 ‘마법의 멜로니네’라고 부르는 가족이 있다. 아일랜드 땅의 중심, 미들랜드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네일과 누나 리즈, 동생 오웬, 엄마 아빠까지 다섯 명으로 구성된 그 멜로니의 네 가족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은 여행객을 위한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세 아이들은 바쁜 부모님을 도와 바닥 청소며 설거지, 침대 시트 바꾸는 일까지 열심히 도와드리며 살고 있다. 가장 바쁜 계절은 여름이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일랜드로 몰려와서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은 멜로니 가족을 ‘마법의 가족’이라고 부를까? 그 비밀은 집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 있다.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은 아무도 쓸 일이 없는, 나무로 만든 구식 전화부스인데, 멜로니 네 가족들은 이것을 ‘날씨 상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다. 일 년에 네 번, 날씨 상자에 들어 있는 전화기가 울릴 때 오직 아버지만이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바로 계절이 바뀌는 것이다. 전화와 함께 하나의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이 시작된다. 이토록 중요한 일은 지구에서 딱 네 곳, 단 네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머나먼 옛날부터 살았다는 특별한 나무 기둥 속 빈 공간, 지하 깊숙이 마련된 방 하나, 어느 신성한 산의 꼭대기, 그리고 멜로니 네 집 앞에 있는 전화 부스 이렇게 네 곳이다. 하지만 어느 여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사건이 일어난 건 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 없는 화창한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가족 모두가 집 근처로 산책을 나서 해가 지평선에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부스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 혼자 부스에 들어가 수화기를 드셨고, 네일은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과일, 푸른 잔디, 따뜻한 모래사장, 곤충들의 울음소리, 따가운 태양. 여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때만 해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름은 9월 20일이 될 때까지 도무지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폭폭 찌는 날씨에 새들은 너무 더워 날아 오를 힘도 없이 축 처져 있을 정도였다. 아빠는 가끔 이렇게 한 계절이 오래 가기도 한다면 서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 때, 이상한 관광객이 멜로니 네를 찾아왔다.

마법을 부려 날씨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무리들, 기상예보관을 꿈꾸는 두 아이의 용감한 싸움

괴상한 마법을 부리며 대문을 두드린 알 수 없는 관광객 곁에는 두 명의 마녀와 꼭 고양이처럼 생긴 아주 못생긴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제야 멜로니네는 아빠가 도말아 해 오신 중요한 임무를 빼앗고 싶어 안달이 난 존재들이 있고, 그들이 이 일을 빼앗기 위해 수년 동안이나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음모를 막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옆집에 사는 피츠제럴드 부인에게도 수상한 기미가 느껴진다. 이상한 관광객 무리가 나타난 이후, 피츠제럴드 부인은 새로운 날씨를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도대체 그 엄청난 능력은 어떻게 갖게 됐을까? 욕심만 가득한 나쁜 무리들 때문에 이제 두 번 다시 가을이 오지 않고 여름만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일과 리즈는 다시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날씨 예보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받아온 네일, 그리고 날씨 예보관을 보호하고 그 중요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호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 온 누나 리즈. 이상한 마녀들과 테러리스트, 거대한 트럭을 몰고 온 사람 등 자꾸만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잃어버린 계절을 찾을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나이젤 퀸란(Nigel Quinlan)은 아일랜드 전역 도서관과 서점에서 일하면서 지역 축제 등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대본을 써 왔다. 위 작품은 그의 소설 데뷔작이다.